

## 브라질 재정지출 동결 법안(PEC 241) 하원 통과

박미숙 전문연구원  
KIEP 구미·유라시아본부 미주팀

### ■ 주요 내용

- 정부의 실질 재정지출을 동결하는 헌법 개정안(PEC 241)이 지난 10월 20일 하원을 통과
- 법 개정은 빠르게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브라질 경제의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
- 브라질의 재정지출축소 정책은 브라질 경제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, 취약계층 보호가 약해지는데 대한 우려도 존재



**KIEP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  
http://www.emerics.org/ http://www.kiep.go.kr/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## 1 이슈 현황

### ☐ 정부의 실질 재정지출을 동결하는 헌법 개정안(PEC 241)이 지난 10월 20일 하원을 통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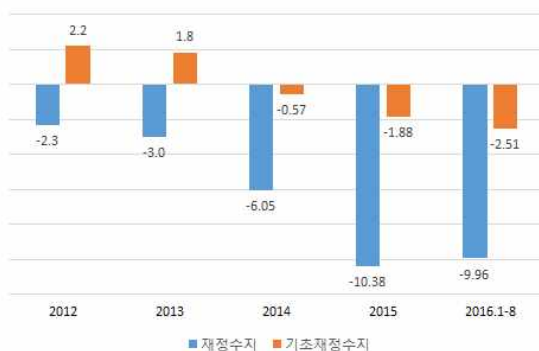
- PEC 241(Proposta de Emenda Constitucional)는 향후 20년 동안 명목재정지출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, 실질 재정지출을 동결하는 내용임.
- 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2회씩 총 4회의 표결을 진행하여 전체 의원의 3/5(308명)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, 10월에 하원을 통과하였고 상원 표결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임.
  - 하원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1차 표결에서는 366명, 2차 표결에서는 359명이 법안에 찬성하여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됨.

### ☐ 법 개정은 빠르게 증가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브라질 경제의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

- 호세프 대통령(2011~2016) 집권 동안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저성장 등으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재정지출은 늘어나 재정적자가 누적됨.
  - 명목재정수지는 2015년 GDP 대비 10.38%적자와 2016년 8월에는 9.96% 적자를 기록하였고, 기초재정수지는 2014년부터 적자로 전환됨.
  - 정부 부채는 2014년 GDP 대비 57.2%에서 2016년 8월에는 70.1%로 증가하였는데, 개도국의 평균 정부부채가 GDP 대비 47%인 것에 비해 과도한 수준임.

표 1. 재정적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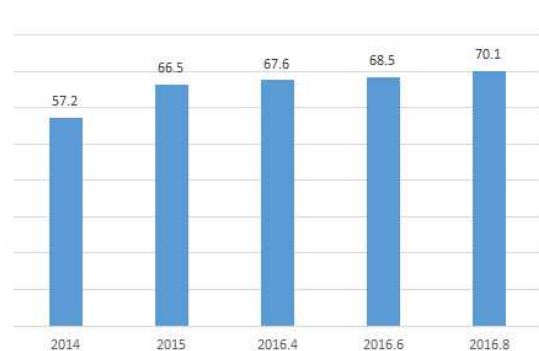
(단위: GDP 대비 %)



자료: 브라질 중앙은행

표 2. 정부부채 추이

(단위: GDP 대비 %)



자료: 브라질 중앙은행

- 최근 재정지출이 증가한 주요 항목은 연금, 실업급여,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, 지난 20년 간 사회보장 지출은 GDP의 4.9%에서 8.1%로 증가하였고 현재 정부 지출의 약 41%를 구성함.
  - 평균 퇴직 연령은 55세이나 많은 노동자들이 조기퇴직을 하여 연금을 수령하고, 고령화로 노동인구에 비해 퇴직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금 지출이 증가
  - 최근 경기침체로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실업이 늘어나 사회보장 부문에서 재정이 악화됨.
- 사회보장비 지출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부분이기에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지출을 제한하고자 함.
- 과도한 재정적자는 브라질 경제의 최대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브라질의 신용등급 하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.
  - 호세프 전 정부가 재정적자를 개선하지 않아, 주요 신용평가사가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2016년 2월과 5월에 강등한바 있음(Moody's: Ba2, S&P: BB, Fitch: BB).

## 2 전망 및 시사점

### ▣ 브라질의 재정지출축소 정책은 브라질 경제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, 취약계층 보호가 약해지는데 대한 우려도 존재

- 2016년 8월 취임한 테메르 대통령 신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바, 신정부 취임 후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주가가 상승하며 해알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임.
  - 그간 기업의 경기전망이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자본재 생산과 수입이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가 회복
  - 브라질은 2015 GDP 성장률이 -3.8%를 기록하여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나, 2016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성장 회복을 주도하여 중앙은행은 2017년 성장률을 1.3%로 전망함.
-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회복되는데 반해, 교육과 보건비 등의 지출이 축소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호가 약해지는 것은 불가피
  - 노령인구 증가와 기술 집약적인 신약 출시 등으로 보건비용은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데 반해, 실질 재정지출이 동결되면 보건비는 현재 GDP의 1.6%에서 1.3%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<sup>1)</sup> **EMERiCs**

1) "Os gastos do governo e os efeitos da PEC do Teto"(2016). Folha de S.Paulo. (Nov. 1)